

“우수한 수공예품 모집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서류·실물 심사 통해 총 50개 상품 엄선해 해외 마케팅 지원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주 수공예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주 수공예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공예품을 모집한다.

22일 전당에 따르면 이 사업은 상품성과 시장성은 갖추고 있으나 해외 진출 및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 수공예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당은 전주 수공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손잡고 2018 이탈리아 밀라노 장인상품 박람회(참가해 상품을 판매하고 해외 잠재 구매자를 대상으로 카탈로그를 발송하는 등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밀라노 장인상품 박람회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 개최되는 참가객 30여만 명 이상의 대규모 B2C 박람회로 전 세계 장인들의 상품이 총집결하는 행사다. 올해는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열리며, 전당은 한국관 내 ‘전주관’을 조성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 서류 및 실물 심사를 통해 총 50개의 우수 수공예 상품을 엄선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는 종이, 섬유, 목공, 장신구 등 공예 분야를 대상으로, 전주에서 활동하는 수공예 작가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기존 전당의 상품개발지원사업이나 작가역량 강화사업 수요자들에게는 심사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박람회 특성상 수공예품만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9월 10~13일이며, 참가 신청서 등을 이메일(hjkang@gvmail.ktc.or.kr)로 접수하



전통문화전당 자료사진

고, 실물 샘플을 전당 공예진흥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전당은 참가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7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병구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사업은 해외 시장에 전주 수공예의 우수성과 현대적 이용가치를 널리 알릴 좋은 기회”라며 “유럽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유럽 시장의 추세를 점검해 전주 수공예품의 수출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기자

‘김제시 부거리 옹기’ 케이리본 우수공예품 지정

무형문화재 부거리 옹기장 안시성
대한민국 대표상품 인정받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53호로 지정된 부거리 옹기장 안시성씨의 옹기작품이 케이리본 우수공예품으로 전북도내에서 유일하게 2005년도 ‘인 모닝식기 세트’가 지정된데 이어 올해도 ‘옹기합 2종’이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22일 밝혔다.

케이리본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는 한국공예상품의 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상승도모 및 공예상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신뢰구축을 통해 우리공예의 세계적 명품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예상품을 발굴,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하여 서류심사, 현물심사(디자인, 제작기술), 안정성 검사(유해중금속)등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상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모든 공예인들의 선망의 대상이라 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에서 옹기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는 옹기장인 안시성씨는 국내 유일하게 보존되어있는 부거리 옹기가마와 작업장을 20년이상 지켜오며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데 기여하였으며 김제 부거리에서 전승되어온 전통제작방식을 그대로 재현함과 동시에 실생활에 필요한 상품개발에도 끊임없는 연구를 지속해온 인물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무형문화재 안시성씨의 작품이 한번도 아닌 두 번이나 케이리본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된 것은 국기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맛과 멋이 살아 숨쉬는 고장 전북도 차원에서도 우리의 전통음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옹기분야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완주군 이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이웃이서 갤러리에서 이달부터 시작한 ‘완주를 사랑한 예술가-완주이야기’를 전시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로 전시보러 오세요”

완주군 이서면, 이웃이서 갤러리서 지역작가 전시

완주군 이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서면(면장 주영환)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이웃이서 갤러리에서 이달부터 시작한 ‘완주를 사랑한 예술가-완주이야기’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과 이서면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완주의 풍경’을 상상 이상으로 담다’를 주제로 완주군에서 자라나고 완주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작가 6인과 신진작가 10인이 함께하는 전시다.

완주의 역사적 명소와 아름다운 경관을 화가 특유의 화법으로 담아낸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위봉폭포조경(전망기)의 29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앞서 이서면은 로비공간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역작가,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회원들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수시로 전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예현 이선화 작가의 개관전시로 시작으로 제2회 Zero point 2018 임승한 기획초대전, 제3회 이화에 월백하고, 이서면 배꽃잔치 주민 퍼포먼스 드로잉전과 이번 전시까지 총 4회에 걸쳐 민화, 서양화, 수묵화 등 85점의 작품을 주민들에게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전시를 관람한 주민 이혜란(모교지마을)씨는 “행정복지센터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한 것 같아 무척 좋았다”며 “이번 전시는 다양한 연령대가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이어서 더욱 흥미로웠고, 아이들도 좋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브랜드공연 출연 객원단원 채용

국립민속국악원(원기석 원장)에서는 브랜드공연(특별기획) 출연 객원단원을 채용한다. 모집인원은 판소리(5명), 사물놀이(1명)등 2개 부문 총 6명이며,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경력사유가 없거나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이다.

접수기간은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이며, 9월 3일 실기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전형방법, 접수방법, 전형(실기)과

제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ttps://namwon.gugak.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채용된 객원단원은 국립민속국악원의 브랜드공연(특별기획)의 활동에 참여하고 1일 6시간 주 5일(화~토) 근무로 계약기간은 올해 12월말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국악원 전화(063-620-2306)로 문의 하면 된다. /남원=김기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